

여수시, 국토부 '드론 실증 도시 구축' 공모사업 선정



여수시가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드론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은 시군 특성에 맞

섬 지역 드론 배송 서비스 '바로가-도(島)' 추진 섬과 바다를 잇는 드론 모빌리티 산업 도약 기대

는 산업용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해 국비를 지원받아 연구 및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시는 배송취약지인 섬 지역 물류편의를 제공하고 드론 조기 상용화를 위해 섬과 육지를 잇는 순환형 드론배송 서비스인 '바로가-도(島)' 추진에 나선다.

사업기간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로 국비 7억 원을 포함, 11억 원이 투입되며 해안드론기술(주), 무지개 연구소, 영국의 UAM을 선도하는 전문회사로 여수에 본사를 둔 스카이포츠-k가 참여한다.

'바로가-도(島)'는 화정면 개도 내 2026년 세계섬박람회 지원 시설에 종합 드론관제시스템, 드론 정비소, 물류보관소 등을 갖춘 물류거

점을 두고 국동 수변공원, 남면 금오도, 돌산읍 송도의 물류분소에 최대 8Kg 이하의 의약품, 특산품 등을 배송하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주요 수요처인 섬 지역 어촌계, 우체국, 농협, 관광호텔 등과 협의를 마쳤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UAM 항로 개발, 드론산업인력 육성 등 아홉 가지 길에 발자취를 "우리는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으로 4차 산업시대 '드론모빌리티 선도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 기자



광양시, '제6회 광양천년 동백축제' 시 공식 축제 개최

광양시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옥룡사지 동백 숲 일원에서 '천년의 숨결 찾아 여행가는 날'이라는 주제로 '제6회 광양천년 동백축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광양동백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축제는 우리 지역 비교우위의 역사·생태 자원인 옥룡사지(국가사적 제407호)를 널리 알리고 시 인지도를 높이는 물론 우리 시화인 동백꽃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련됐다.

2017년 제1회 동백문화행사를 시작으로 2022년 제5회 행사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 중심의 문화행사로 이어오고 있다가, 올해부터는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시 공식 축제로 전환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옥룡사지 동백 숲을 배경으로 한 전국 사진 촬영대회 ▲대중가요 중 지정곡 '동백 아가씨'를 포함한 동백가요제 ▲옥룡사지 동백 숲과 동백꽃을 주제로 한 어린이 백일장과 사생대회 등이 개최된다.

또한, 옥룡사지 동백 숲 관련 스토리텔링 화보전과 추억의 사진전이 동백 숲 잔디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동백화장품 만들기, 머릿기름 바르기 등 향도자원인 동백 오일(oil)을 활용한 체험과 특화자원인 생강을 활용한 진저커피 식음 체험, 도선국사마을 떡 메치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라산재 광양동백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특히 올해는 동백문화행사로서 시 공식 축제로 전환되는 뜻깊은 해인 만큼 이번 제6회 광양천년 동백축제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양천년 동백축제 홈페이지(www.옥룡.kr)를 참고하면 된다. 광양=김현근 기자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대학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지원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20명에 7천만원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 공영민)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 중 성적우수자 20명에게 1~5등 500만원씩, 6~20등 300만원씩 총 7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학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내신 3등급 이내 대학 신입생에게 우수 성적에 대한 보상 및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장학 사업으로, 3학년 1학기 내 신성적(80%)과 수능성적(20%)을 반영해 1위부터 20위까지 선발한다.

이외에도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귀향인 자녀 어울림 장학금 ▲재학생 학년별 성적우수 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 지원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맞춤형 진로 진학 지원 ▲특성화 학교 육성 지원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해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흥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창의적 인재 양성의 터전 마련을 위해 지역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2월 현재 교육발전기금 278억원을 조성해 지역 명문고 및 명문 특성화고 육성,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 영어·한국사·수학 경시대회 개최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위해 포스코그룹 약 4억 2천만원 입장권 구매

올해 4월부터 7개월간 개최... "상생협력 확대해 나갈 것"



기업시민 포스코그룹이 지난 17일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개최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전달식에서 약 4억 2천만 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하며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 이진수 광양제철소장, 이철호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들이 참석

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2013년 순천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열린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4월부터 7개월간 열리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박람회를 위해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광양시 소재 포스코 그룹사와 협력사들이 참여해 총 4억 2천만원 가량의 입장권(약 3

만 5,137매)을 구매하며 협력이 나섰다.

포스코그룹은 이웃 지자체인 순천에서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의 흥행을 지원하며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정신을 실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광양제철소가 구매한 입장권은 광양제철소 임직원뿐 아니라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으로 2023정원박람회 지원과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나눔을 모두 실천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이진수 광양제철소장은 "이번 2023정원박람회가 우리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앞으로도 광양제철소는 이웃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은) "어려운 경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2023정원박람회에 보내주시는 포스코의 통 큰 결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이 2023정원박람회 정신과 맞닿아 있는 만큼 박람회 성공을 통해 포스코와의 상생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이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지원한 데 이어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 성공을 위해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협업해 미디어월(Media Wall)을 활용한 광고·선전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